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6주째 기름값 상승...서울 1800원 돌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0.1당 1727.7원
서울은 1808.1원...국민 물가 부담 가중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째 상승세인 가운데 이달 중 석유수요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 제고 감소세에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이 전망돼 국내 기름값 역시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8월 3주) 전국 주유소 휘

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0(리터)당 1727.7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첫주에는 전주 대비 0.1당 51.1원 상승한 1603.8원을 기록하며 1600원대를 넘어섰다. 둘째주 1695.0원으로 오른 뒤 1700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0.1당 1800원대에 진입했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2.6원 상승한 0.1당 1808.1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 대비 80.4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0.1당 전주 대비 62.3원 상승한 1588.3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6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기름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범

정 최고 인하폭인 37% 인하했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유류세 탄력세를 조정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유종별 가격 흐름이나 세수 영향 등을 감안해 휘발유는 올해부터 인하폭을 25%로 낮췄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인하 전 10당 820원이던 휘발유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갔다가, 올 초 인하 폭이 25%로 줄면서 615원이 됐다. 경유 유류세는 10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도 기름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국민 물가 부담 가중이 우려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공행진 중이던 국제 유가는 중국의 부동산 불안 심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이란의 원유 증산 및 핵협상 복원 희망 발표 등의 요인으로 소폭 하락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지난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 달러(2012원) 떨어진 배럴당 86.4 달러(11만5862원)를 기록했다.
변용일기자



앱솔루트 그라운드 오픈 앱솔루트-스티키몬스터랩 콜라보 팝업스토어 '앱솔루트 그라운드'가 오픈한 21일 서울 광진구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페르노리코리아 프란츠 호튼 대표, 미구엘 파스칼 마케팅 전무 등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락앤락, '아이용 텀블러' 2종 출시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은 아이들을 위한 신제품 2종 '리틀러프 푸드자'와 '스쿨핏 튜밍 원터치 텀블러'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유기 아이들을 위한 리틀러프 푸드자는 소재 안전성과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였다. 푸드자 내부는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나 항공부품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316L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 이중 진공 구조로 보온·보냉 기능도 좋다. 색상은 라벤더, 옐로우, 크림이다.

이 제품은 돌려서 여닫는 스크류 캡 구조와 실리컨 밴딩 형태로 뚜껑을 설계해 내용물이 샐 걱정이 적다. 콤팩트한 300ml 용량과 핸드 스트랩으로 휴대가 용이하다. 입수구도 8.5cm로 넓다.

학령기 아이들을 위한 스쿨핏 튜밍 원터치 텀블러는 전용 DIY(직접제작) 스티커가 내장돼 있어 아이가 직접 텀블러를 꾸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텀블러 내부는 프리미엄 소재인



스테인리스 304로 제작됐다. 화학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아 별도의 연마제 제거 작업도 필요 없다.

소근육이 약한 어린이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동그란 원터치 버튼에 이중 잠금 커버를 더했다. 무게는 225g이다.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 부담 없고 음용구가 투명해 음료의 남은 양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락앤락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부터 9월3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유나기자

불황에 강한 렌탈 '실적 쑥쑥'...중소기업들 "우리도 할래"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렌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빌려 쓰는 렌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담이 큰 비용 지출보다는 매월 소액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데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렌탈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렌탈 시장의 호조세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주요 렌탈 업계의 올해 2분기(4~6월) 실적이 개선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의 2분기 매출액은 1조62억원, 영업이익은 194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9%, 영업이익은 10.3% 증가했다.

코웨이의 분기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분기 매출 호조 속에 코웨이는 연간 매출 4조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코웨이 국내 환경가전사업 매출액은 정수기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5904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법인 매출액은 3789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7.0% 늘었다.

SK매직은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 스스로 플러스 직수 정수기, 뉴슬립 정수기 신제품 3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분기 매출 성적을 받았다.

SK매직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2864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SK매직 2분기 영업이익은 225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17.7% 늘어난 수치다.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도 선방했다. 청호나이스 2분기 매출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7월 얼음 정수기 판매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매출에서 두각을 보였다. 청호나이스 해외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7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국시장 상반기 매출액은 이미 전년 전체 매출액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시장은 전년 동기(1~6월) 대비 300% 이상 늘었다.

쿠쿠홈시스 2분기 매출액은 2422억원, 영업이익은 37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8%, 영업이익은 16.4% 감소했다. 반면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7.1%, 영업이익은 18.6% 증가했다.

창문형에어컨, 에어컨쿨러, 정수기 등 여름 가전을 비롯한 신규 가전 카테고리까지 지

제품 구매보다 빌려 쓰는 렌탈에 관심



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미국·호주 법인의 개선된 실적도 한몫했다.

쿠쿠홈시스는 올해 하반기에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가전에 이어 기능이 개선된 생활 가전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판매 성장을 이룰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잇따라 렌탈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솔루션 기업 옛홈은 렌탈 서비스를 출시했다. 첫 렌탈 제품은 미니스 미니 건조기와 식기세척기, 로봇정수기 클리엔T24다. 옛홈은 롯데렌탈, 에어시스템, 비파트너스, BS렌탈, 스마트렌탈, CS렌탈 등과 협력하고 있다. 렌탈 제품은 확대될 예정이다.

프린팅 기업 브라더인더내셔널코리아(브라더코리아)는 자사 DTG 의류프린터 GTX를 36개월 동안 렌탈해주는 '표준 렌탈 서비스'를 선보였다. 커스텀 티셔츠 프린팅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제품은 GTX Pro 시리즈 두 모델(GTX-423, GTX-424)이다. 의류프린터 단독 또는 주요 주변기기까지 패키지로 렌탈할 수 있다.

헬스케어 디바이스 기업 테마인즈의 AI(인공지능) 코골이 완화 시스템 '모션필로우' 역시 렌탈 서비스를 내놨다. 테마인즈는 LG헬로비전의 LG헬로렌탈을 통해 모션필로우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션필로우 렌탈 서비스는 60개월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한 후 렌탈 기간

이 종료되면 고객이 제품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업계도 가세했다. 자전거 플랫폼 라이트브러더스는 중도해지 위약금 없는 자유반납 렌탈 상품을 선보였다. 24~36개월까지 이용료 납입 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초기비용 부담이 없다. 일반적인 자전거 렌탈과 달리 계약 기간보다 짧은 의무약정 기간만 충족 시 위약금 없이 반납할 수 있다. 계약 만료 시에는 별도 추가금 없이 인수도 가능하다.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공유문화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위해 명품 렌탈 서비스 '트렌비 바이백'을 출시했다. 트렌비 바이백은 고객이 트렌비에서 원하는 상품을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고 다시 포인트로 돌려 받아 원하는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당 렌탈도 나왔다. 직장인 푸드코트 맛집 편점삼 먹기는 목돈이 들어가는 창업 대신 식당렌탈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만기 식당렌탈은 권리금이 없고 홀 인테리어와 주방시설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1000만원으로 서울 역세권에 창업이 가능하다.

만기는 강남, 시청, 분당 등 수도권 핵심상권에 6개 지점, 130여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매장 운영 후 수익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로 내면 된다. 매달 정해진 임대료가 아니라 수익에 따른 수수료 개념이다.

이슬비기자

SPC 배스킨라빈스, '프린츠 커피 아이스크림'

'올 드독'의 테이스팅 노트 재해석

SPC 배스킨라빈스는 커피 전문점 '프린츠'와 협업해 '프린츠 커피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린츠 커피 아이스크림은 배스킨라빈스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프린츠의 대표 원두 '올 드독'의 테이스팅 노트를 재해석했다.

올드독 원두 추출액으로 만든 커피 아이스크림에 커피향 초콜릿 칩과 흑당으로 코팅한 피칸을 넣었다. 또 프린츠와 함께 개발한 새 원두를 선보인다. 배스킨라빈스 원두 브랜드 '카페 브리즈'와 '프린츠'를 합성한 '까-페 브리즈' 원두는 아몬드 봉봉의 고소함, 초콜릿 무스의

쌉쌉함,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바디감까지 느낄 수 있다.

프린츠 대표 바리스타 송성만 이사의 월넛 커피 레시피를 블라스트로 구현한 '프린츠 월넛 커피 블라스트'도 함께 공개한다. 고소한 월넛과 휘핑크림을 더한 블라스트 상단에 아몬드 분태와 프린츠 물개 초콜릿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SPC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커피 입맛이 세분화·고급화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MZ세대에게 핫한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프린츠'와 협업해 특별한 커피맛 플레이버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